

루마니아의 타이어시장 동향

1. 생산 및 수요동향

루마니아는 자동차 보유대수 2백 9십 7만대(트랙터 16.5만대 포함), 루마니아시장의 40%대를 점유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산 등의 중고자동차, 한국 대우의 본격적인 현지생산으로 한국산 타이어 등 외국타이어의 주요 수입국으로 랭킹되어 있다. 불경기와 지지부진한 경제개혁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루마니아인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의 공세가 갈수록 강화되어 루마니아 타이어시장은 신제타이어, 재생타이어를 막론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불과 몇년전만 하여도 루마니아 타이어시장은 Danubiana, Victoria가 독과점적으로 지배하였는데 1995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Danubiana 43%, Victoria 38%, 기타는 Silvania, Rotras, Oltire, Romvelo 등의 순이었지만 이들 개별기업들은 독자적인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노무라은행은 루마니아 국내 타이어시장과 세계 타이어시장 구조변화에 주목하여, 1997년 설립된 Tofan Group이 루마니아 주요 타이어메이커인 Danubiana, Victoria, Silvania, Tofan Recap을 인수 또는 신설한데 막후역할을 하였고 '97년 기준 Tofan Group은 연간 2백 5십만개 타이어를 루마니아에 판매하여 내수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되었다.

〈표 1〉 루마니아의 국내 타이어생산량 추이
(단위 : 천개)

	1994	1995	1996
트럭용	690.5	773.8	892.8
트랙터용	317.0	445.3	224.0
승용차용	1,777.0	1,814.9	1,937.8
총계	2,777.5	3,034.0	3,054.6

즉, 일본의 노무라은행은 사전물밑작업을 통해 정지작업을 마친 끝에 루마니아 최대 타이어메이커인 Tofan그룹의 지분 49%를 '97년 말에 debt, equity financing 형태로 전격 인수한 것이다.

노무라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까닭은 루마니아 타이어시장이 수년안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중부유럽시장과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과 장기적으로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2010년 이전)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노무라가 구 공산권 중부유럽국가의 시장경제 이행, 민영화 컨설팅 경험과 계기로 중동부유럽국가의 정부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내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것도 공세적인 투자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ofan그룹은 현재 루마니아 전역에 자체유통망을 설치하여(주요 도시내 대리점과 Automaxima shops 체인) 거의 모든 종류의 자동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Tofan Group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한 루마니아 타이어메이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을 착수하여, '98년 가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1) 종업원 3,100명을 해고하고, 종업원 급여 25% 삭감을 통한 원가절감, 2) 일부 기술라인을 신규로 교체하여 제품을 신규로 라인업하며, 3) 생산라인을 개선하여 1개 생산라인에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를 생산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참고로 Tofan Group은 4개 타이어제조메이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매출액은 총 1억 4천 4백만달러인데('97년 기준), 5개 기업별 매출액 및 생산품목은 다음과 같다.

○ Danubia(부카레스트 소재)

종업원 3,400명, 매출액 5천 5백만달러이며 농업기계용 타이어를 주로 생산하며, 생산량의 60%를 미국, 독일, 영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Victoria(플로레슈티 소재)

종업원 3,100명, 매출액 7천만달러이며 승용차 및 트랙터용 타이어를 주로 생산, 주로 내수판매를 하고 있어, 품질이 대체로 열악하다는 평가임.

○ Silvania(자라우 소재)

종업원 1,300명, 매출액 1천 8백만달러로 트랙터 및 버스용 타이어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에 의존.

○ Tofan Recap(부카레스트 소재)

'97년 가동한 신설 공장으로 종업원 50명으로 매출액 1백만달러로 재생타이어 생산, 판매.

2. 수출입동향

세계적인 자동차사들의 대대적인 짝짓기로 세계 자동차산업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유대수 2백 9십 7만대(트랙터 16만 5천대 포함)의 루마니아 타이어시장도 수입품의 급속한 시장확대속에 대대적인 개편과정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자본유입으로 시설개체를 통해 일부 타이어품목은 본격적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1) 최근 3개년 수출실적

루마니아의 승용차용 신제타이어수출은 '97년 355만 7천달러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은 영국, 이태리, 프랑스이며 특히 영국은 전체수출의 59%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루마니아의 승용차용 신제타이어 수출추이

		(단위:천달러)			
국 가	1995	1996	1997	증감률('97/'96)	
영 국	1,728	1,716	2,086	(22)	
이 태 리	823	664	388	(-42)	
프 랑 스	334	300	330	(10)	
독 일	272	112	6	(-95)	
벨 기 에	162	47	-	-	
헝 가 리	-	123	24	(-80)	
레 바논	117	77	113	(47)	
이 집 트	17	-	111	-	
총 수 출	3,945	3,417	3,557	(4)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루마니아 국가통계위원회.

〈표 3〉 루마니아의 승용차용 신제타이어 수입추이

		(단위:천달러)			
국 가	1995	1996	1997	증감률('97/'96)	
체 크	3,562	5,400	4,748	(-12)	
폴 란 드	2,790	1,445	1,724	(18)	
벨 기 에	2,360	296	310	(5)	
프 랑 스	1,278	3,146	1,723	(-45)	
영 국	761	755	397	(-47)	
한 국	652	1,511	1,146	(-24)	
이 태 리	-	2,084	1,490	(-29)	
총 수 입	13,811	17,287	15,392	(-1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루마니아 국가통계위원회.

2) 최근 3개년 수입실적

'97년 루마니아의 승용차용 신제타이어수입은 국내경기가 -6.6% 실질 GDP성장을 할 정도로 극심한 불경기에 처해, 루마니아인들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96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98년 루마니아시장은 불경기로 인한 산업생산 감소, 자동차구매감소로 '97년 불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중고타이어, 저가타이어 중심으로 수입

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산 수입은 대우루마니아 자동차가 타이어를 루마니아산으로 로컬소싱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로 루마니아 수입상들이 요구하는 D/A 거래를 한국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어, 한국산의 대루마니아 진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편, 타이어 총수입중 거의 60%가 중고타이어이며 또한 총타이어 수입중 28%가 승용차용인데 수입대상국은 독일(56%), 이태리(17%)이며 수입가격은 세관신고가격 기준으로 신제타이어가 개당 24달러인데 반해 중고타이어는 3~4달러에 불과하여, 구매력이 거의 빈약한 저소득층(루마니아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20달러 수준)으로서는 중고타이어나 재생타이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승용차용 타이어소매가격은 루마니아산이 신제타이어기준으로 개당 4십만레이, 수입중고타이어는 10만레이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루마니아가 '97. 7월부터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에 가입함에 따라, 폴란드, 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산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구보다 저임금인 이들 중부유럽지역에서 생산된 세계적인 타이어메이커들의 제품의 루마니아진출이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근착 ERJ(European Rubber Journal)에 따르면 Michelin은 헝가리의 Taurus공장을 100% 인수한다. 체크의 Continental Barum 공장도 100% 인수하였으며 폴란드의 Stomil 공장 지분의 다수를 인수하여 확실한 진출기반을 잡고 있다.

참고로, 세계타이어 일류메이커인 Bridgestone, Goodyear, Michelin은 선도그룹에 속해 세계 타이어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도 각각 100억달러~12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기업에 속하며 중간그룹인 콘티넨탈, 피렐리, 던롭은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달러~40억달러이며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그룹인 약 50개 기업은 연간매출액이 1억달러~10억달러대로 세계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3. 수입관리제도

HS 401110

다른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기타국가와 관세차이가 적게는 배이상의 차이가 나며, 일부품목의 경우 자유무역협정국가산은 관세를 면세하고 있다.

- 수입관세 : CIF 기준
 - 한국산 및 기타(아래 특혜관세 적용국가를 제외한 전국가산) : 30%
 - EU, EFTA, 터키, 폴란드 : 18%
 - 슬로베니아, 헝가리 : 15%
 - 체코, 슬로바키아 : 무관세
- 부가가치세(VAT) : 22%로 수입시 세관에 납부
 - 과세기준 : 수입가액 + 세관사용료(0.5%) + 관세납부액

한편, 특별한 수입규제사항은 없지만 수입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그 대금이 견본수입 명목 일지라도 대금 지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국립은행에 입증해야 되는데 그 증거로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 거래부터는 선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세관사용료를 0.5%(CIF 가액에다 관세포함한 금액) 지불해야하며 루마니아에 유통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CIF가액에 관세와 세관사용료 포함한 가액의 22%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98년부터 EU, EFTA, CEFTA 산에 세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4. 경쟁동향

루마니아의 타이어 수입시장을 둘러싼 주요 경쟁상황은 세계타이어시장의 글로벌화 가속화, 루마니아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97년 CEFTA(중동부유럽자유무역지대)가입으로 루마니아시장은 유럽 및 세계시장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고 요약된다.

1) 세계주요 타이어메이커들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우수한 품질, 다양한 제품으로 루마니아시장 공략을 적극화하고 있어 시장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라 루마니아 국내 타이어메이커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 특히, CEFTA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등에 미쉐린, 체코에 콘티넨탈 타이어공장이 가동중에 있어 관세혜택, 지리상의 인접성을 적극 활용한 이

들 제품의 루마니아 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타이어 메이저들의 공략에 루마니아 메이커들이 취약한 이유는 1) 이들 메이저들의 1백억달러대 규모의 매출로 압도적인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2) Tofan Group이 특장을 갖고 있는 특수분야 타이어까지 손을 대어 높은 가격으로 루마니아에 연간 2만개 정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마니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타이어브랜드인 Montana, Danubiana, Victoria, Silvania, Transteel 등으로 모두 Tofan Group 계열사인데 이들 제품은 현대식 설비에서 생산되어 낮은 가격대비 품질, 디자인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생산되어 루마니아로 본격 진출하고 있는 미쉐린이나 체코에서 생산되는 콘티넨탈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 점차 밀려나고 있다.

프랑스 미쉐린은 헝가리(Taurus 공장), 폴란드(Stomil 공장)을 인수, 시설개체투자를 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품질 및 브랜드인지도 대비 가격은 적절한 수준으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독일의 Continental도 동유럽에 생산시설을 가동함으로써 미쉐린과 마찬가지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동구 CEFTA내에 생산기지가 없는 Bridgestone, Firestone과 같은 거대기업들 제품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산 타이어는 품질이 양호하며 가격도 적정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브랜드이미지, 마케팅 등에서 서구의 거대 타이어 기업들에게 뒤지고 있다. 아울러, 호주 Bobjane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정수준이나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시장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표 4〉 중소형 승용차용 타이어 개당 소매판매가격 비교
(단위 : 루마니아 레이)

토	관	미쉐린	콘티넨탈	브릿지스톤	파이어스톤	한국타이어	Bobjane
400,000	800,000	800,000	1,200,000	1,200,000	700,000	700,000	

1US\$ = 8,600루마니아 레이(LEI).

5. 마케팅 유의사항

첫째, 루마니아시장진출시 한국산의 주요 경쟁업체는 Tofan과 중고타이어이며, 루마니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루마니아의 극심한 불경기로 많은 운전자들은 수명이 짧고, 특히 중고타이어 등은 워런티가 없어 교

통사고의 위험이 있다지만, 값싼 신제타이어나 중고타이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한국기업들은 한국산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광고 등을 해야하며 세계적인 거대타이어 메이커들의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마니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지사를 설치하여 직접관리를 하거나 적격 디스트리뷰터를 잡아 시장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의 일반적 상관행 : 외상거래, 공급업자 편의주의(Seller's market 성향), 정경유착, L/C보다는 현찰거래 선호, 때에 따라 급행료 필요, 소량다품종 요구 등

셋째, 루마니아의 불경기로 구매력이 저하됨에 따라 재생타이어 수입증가도 증가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97년 총 120만개 재생타이어를 주로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바 있어, 한국업체의 루마니아 재생타이어 시장공략도 고려해 볼 적하다.

넷째, 루마니아 타이어 메이커들이 일본자본의 유입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점차 설비투자를 함으로써 현대식 생산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루마니아에서 자체 생산되지 않은 Steel cord, 타이어원부자재, 금형 등을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KOTRA)

세계 타이어업체 단산

1. Bridgestone사, 인도의 인도레 근처에 승용차와 라이트 밴 타이어 공장 설립

일산 5,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의 지분은 Bridgestone사가 67%를 갖고 있고 연합시멘트회사와 인도의 연합이 23%를 갖고 나머지 10%는 일본의 Mitsui & Co가 갖고 있다. 튜브도 만드는 이 공장은 인도 자동차 공장에 Bridgestone 상표로 타이어를 공급하고 교체용 타이어시장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2. Bridgestone-Firestone사, 스페인 공장에 2년간 110억 페소 이상 투자한 것으로 발표

동사는 1998/99 회계연도에 스페인 타이어 공장에 56억 페소를 투자했다. 이 110억 페소 투자 이외에도 동사는 명예퇴직 계획으로 60억 페소의 예산도 확립한 것으로 발표했다.

3. Goodyear사, Medicine Hat, Alberta에 바이어스 스페어 타이어를 생산하는 캐나다 공장을 확장하는데 75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는 북미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2000년에 확장이 끝나게 되는 이 공장의 부지는 현재 공장의 2배 이상인 117,000평방피트가 된다.

4. Michelin사, 컬럼비아 타이어 제조업체인 Icollantes사를 7,300만달러에 인수

동사는 1998년에 다른 타이어업체를 인수하는데 약 2억 7천 5백만달러를 지출했다. 동사는 Icollantes사의 공장설비 확장에도 추가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남미 타이어시장은 Goodyear사, Bridgestone/Firestone사, Pirelli사와 Michelin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남미에는 이들 회사들 이외에 다른 독립된 2개사 밖에 현존하지 않고 있다. Icollantes사는 연간 1억 6천만달러를 매출했었다.

5. Michelin사, 1998년엔 스페인의 Valladolid에 있는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에 50억 페소 투자

이로써 1999년에 Valladolid와 Vitoria의 공장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을 약 20% 정도 증산할 예정이며 동사는 Valladolid의 공장직원을 70명이나 보충했다.

6. 체코의 Ceska Gumarenska사, 브라질의 동업사와 합작으로 Ramira Pneus사 설립

이 합작사업으로 2억 7천만달러를 투자하여 2001년에 시공하여 2003년에 완공하게 될 새 공장에서는 타이어, 콘베이어 벨트와 고무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Ramira사는 연간 2억 8천만달러를 매출하여 브라질의 승용차용 타이어시장을 약 10% 정도 점유할 예정이다.

7. 불가리아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Vidachim사 폐사 예정

불가리아의 유일한 타이어 제조업체인 Vidachim사는 외국 타이어의 수입에 경쟁하지 못하고 천 3백만달러의 부채를 지고 폐사 위기에 있다. 1998년 12월에 인도할 업체를 물색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고 주주들은 1998년 12월 모임에서 투표하여 공장을 폐쇄하는데 동의했다.

〈자료 : EIU Rubber trends 1st quarter 1999.〉